

AI, 자산관리의 지형을 바꾸다

- 유형별로 본 AI 자산관리의 국내외 현황 -

< Executive Summary >

■ 전세계 AI 자산관리 시장은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급성장할 전망

- 전세계 금융자문자산관리 AI 시장은 '10년대부터 단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RA)를 중심으로 본격 형성된 이후, 생성형 AI의 급부상과 함께 빠르게 성장
 - '25년 247억 달러 규모에서 '35년, 약 6배인 1,51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 국내는 '16년 로보어드바이저(RA) 제한적 허용, '24.12월 퇴직연금(IRP) RA 일임 서비스 허용 등 점진적 규제 완화에 따라 자산관리 분야 내 AI 활용이 확대

■ (일임형 RA) 해외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재편되고 있으나 국내는 초기 확장

- 해외 일임형 RA시장은 알고리즘만으로 운영하는 순수 RA 서비스와 여기에 PB 자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나뉘며, 하이브리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추세
 - 특히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인간 PB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는 수익성 미달로 순수 RA 상품을 종료·매각하는 등 사업을 재편
- 국내는 비대면 일임 허용, 퇴직연금(IRP) 일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계기로 대형 금융사 및 핀테크 간 협업 등이 확산되며 성장하는 단계

■ (투자지원형) 해외는 종합 자산관리로 나아가며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단순 지원형 서비스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

- 해외에서는 고객의 소비패턴과 자산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고도화되고 기업·기관 투자자 전용 AI 플랫폼까지 확장
- 반면, 국내는 생성형 AI를 결합한 포트폴리오·상품 추천, 리서치형 정보 서비스, 대화형 챗봇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되는 단계

■ (PB지원형) 해외는 코파일럿 중심으로 확산중이며 일부는 멀티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 해외는 PB지원에 빠르게 AI를 도입하며 '리서치-고객준비-포트폴리오 분석-미팅 지원' 등 자산관리 워크플로우 전반에 AI가 결합되는 멀티에이전트 생태계로 진화
- 국내는 '25년부터 인간 PB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며 확산 중이나 해외 대비 기능 수준과 범위에서 격차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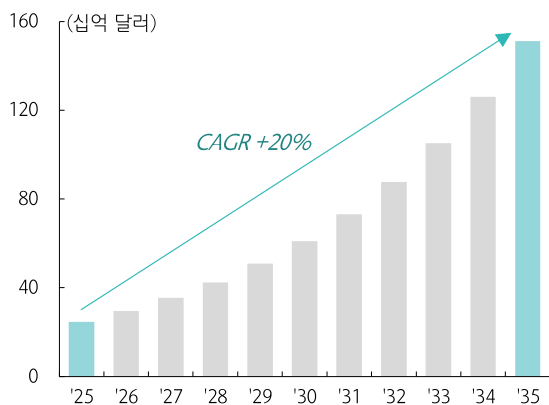
■ 향후 AI 자산관리는 ‘초개인화’와 ‘인간 PB한계 확장’으로 고도화될 전망

- 궁극적으로 AI 자산관리는 소비패턴·자산현황 분석 등에 기반한 초개인화 서비스로 고도화되며 고액자산가 중심이던 맞춤형 자산관리가 대중고객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간 PB에 대한 자문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대되고 PB 코파일럿도 멀티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며 인간 PB 업무의 한계를 넓혀갈 전망

■ 국내에서는 규제환경 완화에 따라 자산관리 AI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완전한 종합형 서비스로 발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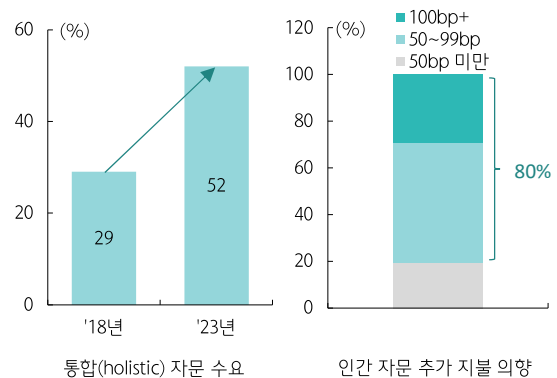
- 향후 일임형 RA는 적용 범위 확대, 투자지원형은 종합 자산관리로의 고도화, PB지원형은 코파일럿 기능 강화로 각각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금융사는 유형별 고도화에 그치지 않고 초개인화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전 세계 방향에 맞춰 자산관리 전 과정을 연결하는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그림 | 전세계 AI 금융자산·자산관리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Insight Analytics

그림 | 통합자산관리 및 인간 자문에 대한 수요



자료 : McKinsey&Company

연구원 이시은 sieunyi@hanafn.com

Key Words : AI,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I. AI 자산관리 시장의 부상

- AI 자산관리는 AI의 관여 주체와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AI 자산관리란 AI가 고객 또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투자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 업무를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 전반을 의미하며, 자산관리 밸류체인 내에서도 단계별로 AI의 관여 정도와 역할이 상이
 - AI 자산관리는 관여 주체와 방식,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①투자일임형 RA¹⁾, ②투자지원형 서비스 및 ③임직원을 위한 PB 지원 서비스로 구분
- 생성형 AI 확산을 계기로 전세계 자산관리 서비스 전반에서의 AI 활용도가 급증
 - 전세계 AI 자산관리 시장도 생성형 AI인 Chat GPT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23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관련 인프라·기술도 고도화되는 추세
 - 가령, 초기 AI 자산관리는 단순 정보 제공 등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관리부터 고객관리까지 자산관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AI가 활용
 - 특히,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 실시간 자산현황·개인별 금융 정보 제공 등 고액자산가에게만 제공되던 맞춤형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가 대중고객에게까지 확대

그림1 | 자산관리 밸류체인 내 AI 활용도



자료 : B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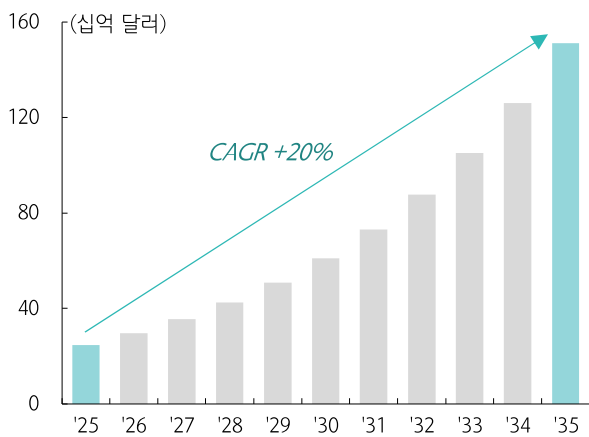
1) 로보어드바이저(RA, Robo-Advisor)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 글로벌 금융자산·자산관리 분야의 AI 시장의 규모는 '25년 247억 달러로, '35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해 1,51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²⁾되고 있으며, 금융전문가들도 향후 생성형 AI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³⁾

■ 국내도 RA를 중심으로 한 AI 자산관리 시장이 성장을 지속할 전망

- 국내는 '16년 AI 자산관리가 도입됐으며, 규제 개선 등으로 점진적 확산이 기대
 - '16년 「금융상품자산문업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이후 금융규제 샌드박스과 디지털금융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비대면 투자 일임, 퇴직연금(IRP) 일임형 RA 허용 등 자산관리 관련 AI 활용 규제가 점진적 완화
- ※ 비대면 일임형 RA는 '19년 일반계좌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25.3월 퇴직연금(IRP) RA도 출시
- 국내 금융권의 AI 시장 규모는 '19년 3천억 원 수준에서 연평균 38% 성장하여 '26년에는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⁴⁾
- 가령 국내 RA 시장은 '17년 RA가 출시된 이후 약 9년간 계약자 수는 약 10배, 운용 금액은 3배 가량 증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시현⁵⁾
 - 최근 인당 평균 운용액은 낮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RA가 대중 고객 기반으로 변화

그림2 | 전세계 AI 금융자산·자산관리 시장 규모 전망



주 : 시장 규모는 매출(Revenue) 기준
자료 : Insight Analytics

표1 | 국내 AI 자산관리 관련 주요 규제

시기	주요 규제	핵심 내용
'16.3월	「금융상품자산문업 활성화 방안」	로보어드바이저 도입·활성화와 온라인 자문업의 단계적 허용
'16.8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RA 알고리즘 사전검증 체계 마련
'18.6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시행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
'19.3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자기자본 요건(40억 원) 폐지
'21.7월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3중 내부통제장치 마련 AI학습 데이터 조사·검증 강화
'23.6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RA 수익률 투자광고 활용 허용 비대면 일임계약 사전공시기간 단축
'24.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 허용 SaaS 이용 범위 대폭 확대
'24.12월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개인형퇴직연금(IRP) RA 일임서비스 17건 신규 지정
'26.4월	내부 업무망 SaaS 활용 확대	SaaS를 망분리 예외사유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26.6월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분야 AI 7대 원칙 금융권 AX 규율체계 마련 계획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취합

2) “AI in Financial Planning and Wealth Management Market Size and Revenue Impact Study 2026 to 2035”, Insight Analytics, 2026.02.19
3) “Using generative AI to power growth for wealth managers”, Accenture, 2025.02.14.

북미지역 재무설계사(Financial Advisor) 설문조사 결과, 96%는 AI가 고객 서비스와 투자관리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97%는 향후 3년 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상품추천, 재무전략,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서 AI가 주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4) “금융 AI 시장 전망과 활용 현황 :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국신용정보원, 2022.05.16., 최근 기준 전망은 부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

5) 계약자 수 : 3.9만 명('17년)→29.2만 명('23년)→39만 명('26.4월) / 운용금액 : 4,200억 원('17년)→7,600억 원('23년)→1.3조 원('26.4월)

II. AI 자산관리 유형별 국내외 사례 및 특징

1. B2C 투자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 고객의 별도 개입 없이 AI가 직접 포트폴리오 운용을 집행하는 ‘일임’ 방식
 -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RA)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매매·리밸런싱하는 가장 대표적인 AI 자산관리 영역으로, AI 의존도가 가장 높은 완전한 형태의 자동화를 의미하며, 초기에 AI 기술이 실제 자산관리에 적용되어 상용화된 서비스
- 해외에서는 '10년대 초반부터 일임형 RA를 제공하며 기능을 지속 고도화하는 가운데, 최근 대형사들은 전문가 자문 병행 서비스에도 집중
 - 초기에는 전문 소형사(Betterment, Wealthfront 등)가 단순 상품 비중 조정 중심의 RA 시장을 주도했으나 이후 전통 금융사들도 진입했고, 연금계좌 등으로의 활용 계좌 다각화, 생성형 AI 결합 등 서비스 전반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고도화
 - 최근 절세, 은퇴설계, 상속·증여 등 복잡한 니즈로 확장됨에 따라 인간 전문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인간과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부상
 - 하지만 일부 대형 금융사들(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은 수익성·비용 등으로 일임형 RA 서비스를 축소·재편하고 전문가 자문형 서비스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

표2 | 해외 주요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Betterment	Automated Investing	- '10년 출시, ETF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 최저 자산기준 없음 - 고객 100만+, AUM \$700억+, '16년 독립RA사 최초 AUM \$50억 돌파 '24년 골드만삭스의 RA 인수 '25년 Ellevest사의 RA 인수
Vanguard	Personal Advisor	- '15년 출시 - \$5만 이상 시 전문가 상담 배정
	Digital Advisor	- '20년 출시, 자산기준 \$3천→100('24년) - 순수 일임형 비대면 RA, 연금·은퇴설계 등 기능 강화
Fidelity	Fidelity Go	- '16.7월 출시 - 일반계좌~연금계좌(IRA, HSA 등) 등 - 최저 자산기준 없음 - \$2.5만 이상 시 자동 절세 최적화 적용 - 전문가 자문 무제한
Merrill (Bank of America)	Merrill Guided Investing	- '17년 출시, 하이브리드형: CIO팀이 포트폴리오 설계 후 자동 운용 - \$1,000 이상, 수수료 0.45% - \$2만 이상 시 전문가 자문 병행(0.85%) - 일반계좌~연금계좌(IRA) 등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표3 | 해외의 주요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축소·재편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JP Morgan	You Invest Portfolios	- '19.7월 출시 - 위험성향, 목적, 기간에 따른 JP모건 ETF 중심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추천·구성·관리 '23.12월 서비스 종료 발표 : 수익성 미달 및 고객 수요 부족 이슈 - 별도의 자문 서비스에 중점
BlackRock	Future Advisor	- '15년 전문 RA사인 FutureAdvisor을 인수 '23년 개인투자자 대상 RA를 Ritholtz사에 매각
UBS	Advice Advantage	- '18년 SigFig(핀테크)와 협력해 개발·출시 '25년 서비스 종료(수익성 부족 및 경쟁)
Goldman Sachs	Marcus Invest	- '21년 출시 '24년 Betterment에 매각 - 고객자산가 WM 및 AI 활용 내부 자문 도구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Morgan Stanley	Access Investing	- '17년 출시 '22년 E-TRADE(자회사)의 RA인 'Core Portfolios'로 통합해 비용 효율화 - Virtual Advisor, Financial Advisor 등 대면 및 비대면 자문 서비스에 중점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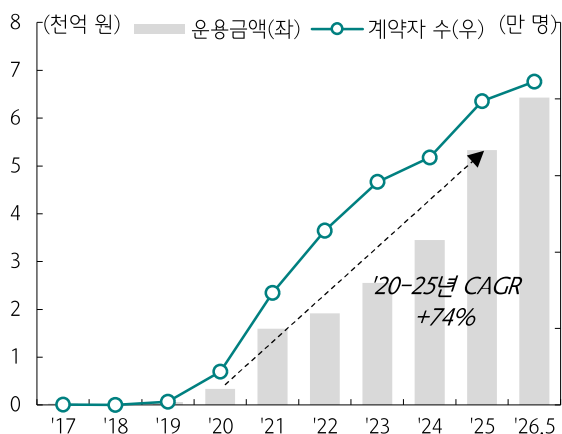
■ 국내 일임형 RA 서비스는 '20년대에 들어서며 성장이 본격화되는 추세

- 생성형 AI 성장과 단계적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일임형 RA의 운용금액과 계약자 수 모두 '2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
 - '19년 비대면 일임 허용 이후 일임형 RA 운용금액과 계약자 수는 5년간('20-'25년) 각각 연평균 74%, 56% 성장하며, 자문형이나 무료추천형 대비 매우 빠른 성장세를 시현⁶⁾
 - 최근 생성형 AI의 붐과 퇴직연금 RA 일임 허용('24.12월) 등을 계기로 성장이 가속

■ 국내 금융사의 일임형 RA는 제휴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 해외는 대형사의 자체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한 내재화가 주류인 반면, 국내는 핀테크·전문 RA사와의 B2B2C 형태 제휴 파트너십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 주요 자문일임사·독립RA사는 알고리즘을 금융사에 공급하는 B2B2C 형태로 비즈니스 확장
 - 국내 대형 시중은행 및 증권사는 알고리즘 기술을 보유한 독립 RA사(디셈버, 파운트, 쿼터백 등)와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 편
- 이를 통해 금융사는 보다 신속한 서비스 출시와 검증된 알고리즘 기반 운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핀테크사는 자사 알고리즘의 노출 및 이용 기회 확대해 고객 기반 확장 가능

그림3 | 국내 일임형 RA 운용금액 및 계약자 수 추이



자료 :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6) '20-25년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자문형은 1%, 무료추천형은 -14%

표4 | 국내 주요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디셈버앤컴퍼니	핀드(fint)	'19.4월 출시 '26.3월 AUM 5,200억 원 국내 RA 투자일임 서비스 점유율 72%, 퇴직연금 RA 중 점유율 36%('26.3월 기준) B2B2C 차원 하나증권·KB증권·NH농협은행 등 금융사에 제공
하나은행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25.3월 퇴직연금(IRP) 일임형 RA 최초 출시 파운트와 공동 개발
미래에셋자산운용	M-Robo	'25.4월 출시,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이용 가능
키움증권	키우GO	'21.3월 출시, 자체 개발 일임형 RA 투자 목표기간·금액·성향 종합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추천, 운용, 리밸런싱
삼성증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25.4월 출시 쿼터백 공동 알고리즘 활용 ※ POP Robo: '16년 출시한 RA 서비스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2. B2C 투자지원형 서비스(비일임형)

- 투자자가 직접 다루는 대(對)고객 AI 서비스로 고객의 재무 전략·계획을 지원
 - 과거에는 통계·머신러닝 기반 분석을 제공하는 데에 그쳤으나,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대화형·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
 - AI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자산·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목표 설정,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 투자자문, 리서치 등을 제공하면 고객이 최종 실행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
- 해외에서는 단순 자문형, 리서치형에서 벗어나 AI가 소비·자산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개인화된 종합 자산관리 역할로 확대되고 대상 고객군도 다양화
 - 소비 패턴과 자산 현황 분석을 실시간 분석해 선제적으로 자산관리를 제안하거나 (ex. 알림형)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혹은 지출관리·투자자문·재무계획 수립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로 진화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 대형 금융사들은 기업·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 인사이트·리서치부터 실제 거래 실행까지 지원하는 전용 AI 플랫폼으로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시도

표5 | 투자지원 서비스 유형

유형	특징 및 주요 사례
리서치 및 시장분석형	: 뉴스·공시·시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요약해 인사이트를 제공 ex) HSBC AI Markets, 하나증권 AI 월가 인사이트 등
포트폴리오 및 상품추천형	: 투자성향·목표분석 기반 맞춤형 자산배분 및 금융상품 제안 ex) Charles Schwab의 Portfolio Insights, 하나은행 아이웰스 등
대화형 투자자문(챗봇)형	: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즉시 질의응답, 종목분석 및 거래 연계 ex) BofA의 에리카(Erica), 카카오�뱅크 대화형 검색, 하나증권 하나Q 등
종합 재무설계 및 생애주기 관리형	: 자산·소비 현황 통합 진단, 절세·온퇴 등 생애주기별 목표 설계 ex) DBS의 NavPlanner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표6 | 해외 주요 AI 투자지원서비스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BoA	Erica	- '18.6월 출시, AI 채팅 기반 - 은행 업무(거래내역 조회, 송금 등) - 소비 패턴과 자산 현황 분석 기반 선제적 알림 -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전화/채팅)
DBS	Nav Planner	- '20.5월 출시 - 자산현황 분석 기반 맞춤형 자문 : 지출관리, 투자자문, 재무계획 수립 등
	DBS Joy	- '25.11월 출시 - 기업 고객 전용 AI 챗봇 어시스턴트 - 24/7 실시간 상담, 상담원 연결도 지원
HSBC	AI Markets	- '23년 출시 - 대기업 및 기관투자자 대상 대화형 AI 플랫폼 및 트레이딩 어시스턴트 : 시장 인사이트·리서치, 실시간 유동성·가격 정보, 실제 거래 실행 등
Charles Schwab	Portfolio Insights	- '26.5월 출시 - 개인투자자 위한 생성형AI 분석 - 포트폴리오 성과, 관련 시장 뉴스, 자체 분석 자료를 통합해 고객별 포트폴리오 영향 요인 분석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 반면, 국내의 경우 리서치, 포트폴리오·상품 추천, 챗봇 등 종합 자산관리를 위한 사전 단계 성격의 서비스 중심이며,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역할은 제한적
 - 초기에는 단순 업무(검색, 지표 확인 등)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화형 챗봇, 포트폴리오·상품 추천, 자산관리 관련 인사이트 제공을 하는 수준으로 발전
 - 다만, 상속·절세 컨설팅 등 비금융니즈와의 통합은 초기 수준으로, 통합 자산조회·진단은 보편화되었으나 ‘진단-설계-실행’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는 제한적⁷⁾
- 국내 은행은 자산배분 추천, 증권사는 리서치·시장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결합하며 기능을 고도화
 - 은행은 위험성향 및 시장분석에 기반한 자산배분 추천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고객 자산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간 PB 상담과의 연계는 아직 초기 단계
 - 증권사는 고객의 앱 체류시간 향상과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AI 기반 투자 정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쇼츠 영상·맞춤형 큐레이션 피드 및 대화형 챗봇 등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정보·콘텐츠 서비스로 다각화하는 중

표7 | 국내 은행의 주요 AI 투자지원서비스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하나은행	아이웰스	- '23.4월 출시, 초개인화 AI 자산관리 솔루션 - 모바일 초개인화 AI 알고리즘기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 PB 상담 직원 연결 등 하이브리드 상담
KB국민은행	AI포트폴리오	- '24년 출시 - AI 기반 시장 분석 및 맞춤형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및 투자 제안 - AI투자컨텐츠(인사이트) 및 포트폴리오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
신한은행	AI투자메이트	- '25년 출시 - 생성형 AI기반 투자정보 서비스 : 상품 추천, 투자자문 등 제공 - GPT 기반 대화형 서비스로 고도화 예정
농협은행	AI금융상품 추천서비스	- '24.6월 출시 - 절세투자 등 관심사 및 고객별 실제 금리, 부동산 보유 등 예측정보 종합 고려해 상품 추천
카카오뱅크	대화형 검색 및 금융계산기	- '25.5월 Azure OpenAI 기반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시작 - '25.6월 AI 금융 계산기 서비스 출시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표8 | 국내 증권사의 주요 AI 투자지원서비스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하나증권	AI 내부자 시그널 AI 월가 인사이트	- 내부자 공시 정보를 실시간 제공 - 미국 주식정보를 매일 요약해 제공
세미나라온지	하나Q	- '26.1월 출시, AI 분석 기반 영상 투자 전략 서비스(1분 이내 쇼츠 형태)
KB증권	Stock AI AI 투자 브리핑	- '26.6월 출시, 24시간 상담 AI 챗봇 - '23.3월 출시, 투자성향 맞춤 정보 제공 - 대화형 기술 통해 뉴스&실시간 데이터 분석 - '25.9월 출시, AI 기반 뉴스 분석·구조화 및 핵심 정보 선별 요약
신한투자증권	AI PB	- '25.9월 출시 - 실시간 투자 정보 챗봇: 종목 종합 분석, 시세 조회, 뉴스 선별, 등락 원인 해석 등 - 맞춤형 큐레이션 피드 '오늘': 고객 맞춤형 뉴스를 매일 요약해 전달
NH투자증권	차분이 잔분이 Terminal X	- '24.9월 출시, 생성형 AI 기반 차트 분석 - 보유종목 분석, 매매패턴·투자성향·편중여부 등 제공 - '25.8월 출시, AI투자 에이전트 월가 데이터 분석 기반 인사이트·리서치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7) '22.1월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이후 확산, '25.6월 「마이데이터 2.0」으로 전 업권 일괄 조회진단이 가능해졌으나, 개인 신용정보의 AI 활용 제약 등으로 조회·진단을 넘는 설계형 서비스 등으로의 발전은 지연

3. PB 지원 서비스

■ 최근에는 자산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도 고도화

- RA에 전문가 자문을 결합시키는 형태가 부상함에 따라 AI를 PB 업무의 단순 자동화해주는 수준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추세
- PB들이 고객의 자산 현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고객 중심 상담, 관계 형성, 전략 설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해외 대형 금융사들은 인간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I를 자문가 코파일럿으로 일찍부터 도입, 일부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발전 중

- 초기에는 고객 대화 요약 및 투자자문 관련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자문가가 고객과의 실질적 상담과 관계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자문 품질을 제고
- 나아가 투자 리서치 자동화, 자문가애널리스트 대상 맞춤형 질의 대응 등을 아우르는 AI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며 리서치·포트폴리오분석·미팅지원 등 자문 워크플로우 전반에 AI 결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

표9 | 해외 주요 PB지원 AI 서비스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Morgan Stanley	AI@MS Assistant	- '23.9월 배포, Chat GPT 기반 - 맞춤형 자산관리자문 서비스 챗봇 : 내부 리서치 보고서·투자전략 등 검색
JP Morgan	Coach AI (Connect Coach)	- PB자문가를 위한 실시간 AI 어드바이저리 도구 - 정보 탐색 시간 95% 이상 단축
	Ask David	- 멀티에이전트형 투자 리서치 자동화 도구, 자문가/애널리스트 맞춤형 금융상품 관련 질의 해결
HSBC	Wealth Intelligence	- '25.9월 출시 - Private Bank의 생성형 AI 기반 플랫폼 - WM 대면 직원, 투자상담사, 상품전문가 등에게 시장 인사이트 및 맞춤형 투자전략 지원(AI 코파일럿)
Citi	Ask Wealth	- '25.8월 출시 - 자산관리사, 프라이빗 뱅커, 서비스팀 등 대상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업무지원 챗봇
	Advisor Insights	- '25.8월 파일럿 출시 - 자산관리사 및 뱅커를 위한 AI 기반 맞춤형 대시보드(실시간 현황 분석에 맞춤형 알림)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표10 | 국내 주요 PB지원 AI 서비스 사례

금융사	서비스명	주요 특징
신한은행	자산관리 AI 에이전트	- '26.2월 출시 - 자산관리 관련 직원용 AI 에이전트 : 자산 현황과 시장 상황 분석에 최적화된 자산관리 방법 및 금융상품을 제안
우리은행	심층 리서치	- '26.2월 출시 - 산업·기업 관련 은행 내부 데이터 활용해 수집·연계·분석해 보고서 자동 생성 - MS 코파일럿과 결합해 외부 정보도 활용 가능 - 자산관리, 여신심사, 내부통제 등 은행업무 전반 활용 가능
미래에셋증권	WM Daily Brief	- '25.7월 출시 - PB 대상 고객자산 관리 지원 솔루션인 'AI자산관리비서'에 도입 - PB에게 매일 아침 주요 시장 이슈 및 고객 자산현황, 리스크 정보 등을 전달
KB증권	개비 AI	- 사내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 고객 포트폴리오 점검·분석, 채권주식 시황 등 시장변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보유 종목 관련 최신 이슈·뉴스 제공 - '26.4월 기준 10종 에이전트 적용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 국내에서는 '25년부터 PB 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이 본격화

- '24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이후 점진적 규제 완화에 따라 자산관리 방법 제안, 시장이슈자산현황 요약 등 PB 지원 서비스가 복수의 금융사에서 출시되며 빠르게 확산
- 다만, PB 전용 도구보다는 전사 범용 AI 플랫폼 내 기능 형태가 많고 자문 워크플로우 전반을 아우르는 해외 금융사 대비 기능 수준과 통합 범위에서 격차가 존재⁸⁾

III. 향후 AI 자산관리의 기회와 과제

■ AI는 인간 PB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역량을 끌어올리며 빠르게 성장

- 금융권 자산관리 영역에서 AI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일임형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동반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중시
 - 인간 PB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일임형 RA의 경우 인간 PB의 자문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
- ※ 가령, 미국에서는 보다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간 자문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5] 참조)
- 비일임형 투자지원 AI의 경우, 생성형 AI 결합으로 기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단순 자문을 넘어 종합 자산관리 역할로 확장되고 기업·기관 투자자 전용 서비스로도 다각화
- 동시에 AI는 인간 PB의 역량 강화를 위한 코파일럿으로 정착하는 중
 - 생성형 AI의 확산 이후에도 AI로 자문가를 대체하기보다, 더 많은 고객에게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정보탐색→미팅 준비 자동화→기관 리서치'로 이어지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진화

■ 국내는 해외와 달리 점진적 규제 완화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되는 단계

- 일임형 RA는 퇴직연금(IRP) 일임 허용을 계기로 대형 금융사와 알고리즘 전문사 간 협업 등으로 성장이 가속되고 있으며, 투자지원 AI는 포트폴리오 추천, 대화형 챗봇, 리서치형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향하며 발전하는 단계
- PB 지원 서비스는 자문 워크플로우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가 전용 도구로서의 완성도는 낮은 수준이며, 고도화를 위해서는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등이 필요

8) 아직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활용 등 망분리 규제 적용을 받는 부문이 많아 종합 코파일럿으로의 고도화에는 제약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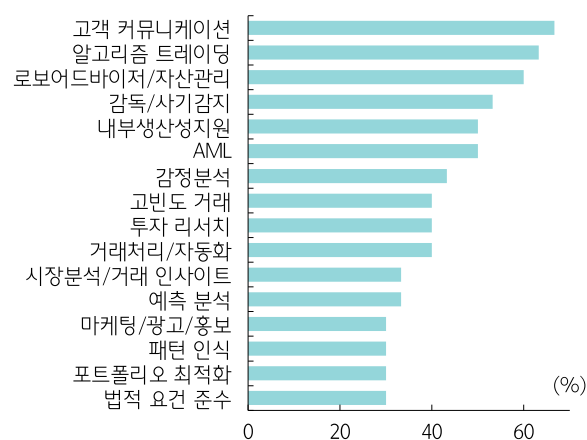
■ AI 자산관리는 ‘초개인화’와 ‘인간 PB 한계 확장’이라는 기회를 맞이할 전망

- 금융권에서 AI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로보어드바이저/자산관리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며, AI가 자산관리 밸류체인, 특히 고객 대면 영역에 우선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향후 전세계 자산관리 AI는 AI와 인간 PB를 모두 강화하는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 ① 하이브리드(인간+AI) 모델의 보편화, ② 생성형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③ PB 코파일럿의 멀티에이전트 진화의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도 자산관리 전 과정을 연결하는 경쟁력 차별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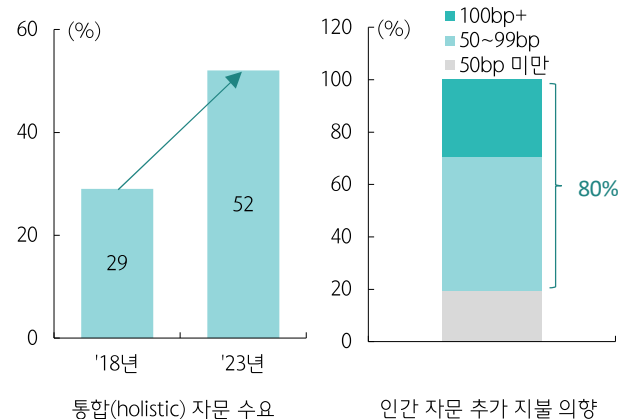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AI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AI 자산관리를 위한 규범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⁹⁾ 향후 AI 자산관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이에 따라 투자지원·PB지원형 서비스도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금융사들은 AI 자산관리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일임형 RA) 향후 규제 완화에 발맞춰 퇴직연금(DC형)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알고리즘 경쟁력 강화 및 절세 자동화 기능 개발 등 전반적인 RA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
 - (투자지원형) 마이데이터 2.0 등 규제 정비에 대응해 조회·진단·설계·실행을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하고, 상속·절세 등 비금융 영역은 전문가 연계형으로 통합 강화 필요
 - (PB 지원형) 자문가 전용 B2B 내부 도구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망분리 등 규제 완화에 발맞춰 생성형 AI 기반 자문가 코파일럿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

그림4 | 금융권 AI 활용 현황



주 : 30개 IOSCO회원/SRO 설문조사 결과, 30% 이상 항목만 명시
자료 : IOSCO

그림5 | 통합자산관리 및 인간 자문에 대한 수요



자료 : McKinsey&Company

9) 금융위는 '26.6월 금융분야 AI 7대 원칙 등을 담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 및 AX관련 규율체계 마련 계획을 발표

[참고문헌]

- Accenture, “Using generative AI to power growth for wealth managers”, 2025.02.14
- Accenture, “Powering wealth management with generative AI”, 2025.07.05
- BCG, “AI and the New Economics of Wealth Management”, 2026.05.27
- Insightace Analytic, “AI in Financial Planning and Wealth Management Market Size and Revenue Impact Study 2026 to 2035”, 2026.02.19.
- IOSCO, “Artificial Intelligence in Capital markets: Use Cases, Risks, and Challenges”, 2025.03
- McKinsey&Company, “The looming advisor shortage in US wealth management”, 2025.02.10.
- Vanguard, “AI and financial advice: A playbook for advisers”, 2026.04.02
- World Economic Forum, “AI, wealth management and trust: Could machines replace human advisors?”, 2025.03.17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2021.12.06
- 자본시장연구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2025.03.31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와 해외 각국의 감독 방향”, 2025.05.12
- 하나금융연구소, “퇴직연금시장의 혁신, RA 기반 투자일임 서비스”, 2024.03.22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AI 시장 전망과 활용 현황 : 은행권을 중심으로”, 2022.05.16
-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 있는 혁신, 금융권 AX 본격 추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2026.06.18

하나Knowledge⁺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

